

KBO 10개 구단 올해 '춘추전국시대'

절대강자 없어 우승후보 점치기 어려워

지난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2016 KBO리그 페넌트레이스가 시작되며 7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겨우내 전력에 변화를 주고 시범경기 동안 컨디션을 끌어 올린 10개 구단은 개막 경기와 함께 매 경기 승리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올 시즌은 누구도 쉽게 우승 후보를 점칠 수 없을 정도로 절대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는 평가다.

지난 시즌 우승팀의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은 "이제는 시즌 중반, 여름에 페이스를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며 "시즌 첫 경기부터 마지막 144번째 경기까지 매 경기 다 똑같은 싸움이다.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즌 초반 하위권으로 처진다면 쉽게 순위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막 첫 주 우선으로 일요일 3경기가 취소되면서 총 12경기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무려 8경기가 1점차 승부였을 정도로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승부였다. 짜릿한 끝내기 승부도 4경기나 펼쳐졌다. LG는 이를 연속 한화에 연장 끝내기 승리를 거뒀고, kt와 SK는 끝내기 승부를 나눠 가졌다.

LG는 10개 팀 중 유일하게 패하지 않았다. 개막 전부터 연장 12회 끝내기 승리를 한 LG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연장 11회 이병규의 끝내기 안타로 2연승을 달렸다.

뒷심이 좋은 한화에 두 번의 연장승부 끝에 승리를 거둬 분위기는 최고다. 일요일 경기가 우선으로 취소해 투수들의 체력도 비축했다. LG는 본격적인 장기 레이스에 돌입하는 이번 주 KIA와 SK를 상대로 원정 6연전을 치른다.

5일 KIA와의 1차전에 류제국이 출격하지 않았지만 이후 선발진이 마땅치 않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전력 누수가 가장 큰 넥센은 시즌 전망에서 꼴찌 후보로 평가됐지만 롯데를 상대로 개막전 패배 후 2연승하며 워닝사이드를 만들었다. 일요일 갑작 선발로 나선 고졸 2년차 박주환이 호투해 가능성을 보였다. 기본종개 출발한 넥센은 대전으로 가 한화와 3연전을 치른 뒤 잠실로 올라와 다툰 챔피언 두산에 상대한다.

지난 시즌 개막과 함께 11연패를 하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던 kt는 SK를 상대로 개막전부터 승리를 챙기는 등 2승 패로 기본종개 출발했다.

5일부터 삼성과 홈 개막전을 갖는 kt는

주 후반에는 KIA를 불러들여 안방에서 6연전을 갖는다.

시범경기 홈런 1위 김사연이 개막전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새로 합류한 유한준과 이진영이 타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외국인 선발 3인방 중 마리몬과 피노가 선발승을 거두며 합격점을 받았다.

강호 삼성을 상대로 백야트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연전에서 김사연의 공백을 훌륭히 메운 하준호가 계속해서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만난 삼성과의 개막 리메치에서 1승1패를 거둔 두산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승리를 거뒀던 NC와 넥센을 상대한다.

두산과 1승씩을 나눠 가진 삼성은 kt와의 수월 원정 3연전에 이어 부산으로 이동해 롯데를 상대한다.

선발 차우찬과 웨스터가 첫 등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벨레스터와 장원심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불시스러운 일로 개막전 엔트리에 제외됐던 선발 윤성환과 마무리 안지민이 1군에 등록하며 언제 마운드에 오를지도 최대 관심사다. 두 선수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경우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 3연전에서 각각 넥센과 kt에 흔들리던 롯데와 SK는 주중 3연전에서 격돌한다. 이후 롯데는 삼성을, SK는 LG와 각각 만난다. 롯데는 상무에서 복귀한 고원준과 선발 로테이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박세웅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확실한 4.5선발이 없는 SK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확실한 5강 후보로 꼽혔지만 개막 2연전을 모두 연장전 끝에 패한 한화는 넥센과 NC를 차례로 만난다.

에이스 로저스가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에서 선발진 구축이 늦어지면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지난 3일 경기가 우선으로 취소해 투수진이 어느 정도 회복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투수진 운용과 함께 이용규가 복귀할 때까지 타선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김성근 감독의 고민이 깊게 느껴진다.

KIA는 LG와 광주 개막전을 치른 뒤 수원으로 이동하고, NC는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통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려고 한다. 이어 홈에서 독수리 사냥에 나선다.

/김민근기자



전북도지사배 남녀볼링대회 성황리 마쳐

제13회 전라북도지사배 남녀볼링대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익산 한성볼링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볼링연합회가 주관 전라북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도내 450명 볼링 동호인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개인전 남자부와 여자부 2인조와 3인조 혼성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대회 결과 개인전 남자부 1위는 익산 어메이징클럽의 정승완씨가 차지했으며 여자부 1위는 군산시 원스클럽 이경아씨가 차지했다.

/김민근기자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세계무술축제 참가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인도네시아 Purwakarta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무술축제에 참가해 관객들의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석대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답게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라 5미터에 이르는 고공점프와 연이은 발차기 기술, 격파시범 등을 선보이며 무대를 시작했다. 이어 K-POP이 어우러진 태권공연예술 '사랑이'를 공연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번 2016세계무술축제에는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비롯해 브라질의 카포에라, 인도

의 칼라리파야루, 일본의 가리테, 중국의 쿵푸, 인도네시아의 푼짜살라 등 6개국이 참가해 국가의 고유 무술을 선보이며 친선과 우애를 다졌다.

우석대학교 최상진 태권도학과장은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과 명품학과에 선정된 태권도학과는 그동안 태권도에 공연과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태권도를 통한 신 인류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태권도가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스포츠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전주 개최 예정

전국초등학교 최강의 축구클럽을 가리는 '2016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이 오는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와 전주시통합축구협회(회장 이영국)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출전팀은 3월부터 9월초까지 35개 권역의 322팀이 1,608경기를 치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쳐 상위 64개 팀이 출전할 예정이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이번 대회는 금년에 8회째를 맞았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4번의 유치경험이 있다.

전라북도축구협회 유종희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는 전주시 외에도 타 지역에서 유치신청이 많아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되어 더욱 기쁘다"며 "지역적 접근성이 대회 운영면에서 접수를 얻어 선정된 것 같다"고 대회 유치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이어 "금년도는 다른 해 보다 개최지역 발표가 비교적 빨라 시간을 많이 벌여둔 만큼 시설과 안전을 비롯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임실군씨름연합회 모악산 등반 도민체전 우승결의

임실군씨름연합회(회장 이기주)에서는 지난 2일 이달 군산에 있는 도민체전 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기주 연합회장(임실 정마트)과 선수감독 김시영(전 증평군청)을 비롯해 도민체전 출전선수 및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하여 모악산을 등반하며 지난 2015년에 이어 우승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기주 연합회장은 "씨름종목은 초등부, 중등부, 성인 남녀 혼성팀 등 한팀이 7명씩 21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임실공설운동장 모래장이 비좁아 전주 씨름장을 오가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달째 집중 훈련을 하고 있다"며 "선수들 모두가 통합체육회 등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기가 충만해 있어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임실군의 씨름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임실=진홍영기자

북귀 입박 웨인 루니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그라운드 북귀가 입박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주장 웨인 루니(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신은 아직도 대표팀과 클럽에서 보여줄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루니가 플레이어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수년간은 더 될 수 있다.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루니는 지난달 26일 '전차군단' 독일과의 맞수 대결에서 골을 넣는 등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해리 케인(28·토트넘)에 대해서도 경쟁 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주장으로서의 의무감을 강조했다.

루니는 지난 2월 13일 스코틀랜드와의 리그 경기 중 입을 무릎 부상으로 리그 경기는 물론 A매치도 뛰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부상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에서 나서 5골을 득점하는 등 좋은 골감각을 보여줬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